



고창군, 희망2024나눔캠페인 우수 표창패 수상

고창군이 지난 16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최하는 '희망2024나눔캠페인 우수 시군 표창패 전달식'에 참석해 표창패를 수상했다.

고창군은 캠페인 기간동안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진행하여 당초 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6억2100만원을 모금, 200%초과 달성하였다.

그 결과 총 모금액, 1인당 모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기부문화를 움츠러들게 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의 온정을 보여준 고창군에 감사드립니다"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영광은 고창군민들의 기특한 나눔과 사랑, 봉사정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고창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도통동, 사랑 나눔장터 개최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통사랑나눔장터'를 개최하였다.

동 근린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기부하고, 모인 기부물품을 이웃에 재판매·교류하는 장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터 수익금은 나눔 캠페인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로 만들어진 장터의 수익금을 재기부, 기부 선순환을 조성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사용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친환경 수세미 등은 나눔장터가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호·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와 지역주민과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상호 소통할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물품 기부를 통해 이번 기회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기부도 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참여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통동, 여름철 재해 대비 수방자재 사용훈련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16일, 동 행정복지센터 1층 주차장에서 동대장, 동 자율방범대장, 건설기계 사업자,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명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수방자재 사용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읍면동 6대 핵심 과제 중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방자재 장비 사용 미숙 또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응급복구 지연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빈번한 여름철 풍수에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진행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관기업 간의 협력 이 강화되어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이로써 사회적 안전과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전통문화,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비상'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미 장병에 전북을 알리는 글로벌 홍보... 공공외교 실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이 지난 17일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전북의 전통을 체험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군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전북을 홍보하고, 지역 이해도를 높이는 등 공공외교 실현을 위해 군산 미 공군기지의 Military & Family Readness Center와 협력해 'Wings of Tradition : Experience Jeonbuk' (전통의 날개 : 전북을 체험하다)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기획했다.

진흥원은 △한지 청사초롱 조명등 만들기 △한글 LED 조명등 만들기를 비롯한 전통 공예 체험과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북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진흥원이 미 공군기지와 최초로 협력하여 미 공군 장병들에게 전북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대식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장은 "이번 전통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에 주둔하는 미 공군 장병들이 전북의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교류 기회를 늘려나가기 위해 미 공군기지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평통자치문회의 정읍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동환 협의회장의 주재 하에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동환 협의회장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확산 등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소통, 으뜸 정읍'... 정읍시, 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1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공직자들이 소통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 소통, 으뜸 정읍'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염연선 도의원, 고경운 시의회 의장, 공직자 등 9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시립음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시의원과 간부 공무원 간 친선 배구경기를 진행했다. 또 내장산, 정읍사, 구절초, 황토현 등 4팀으로 나눈 직원들이 각종 경기를 치르면서 화합을 다졌다.

경기 후에는 초청가수 공연과 시상식, 행운권 추첨행사를 진행하며 동료애를 돈독히 다졌다.

이학수 시장은 대회사로 통해 "지난 5월 11일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행사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정읍을 주제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와 동학농



민혁명 기념제가 치러진 것은 우리 직원 모두가 하나 돼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며 "전 직원이 하나되는 체육대회를 통해 힘을 합쳐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만들어 가기 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오세환 고창군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고창군의회 오세환 의원이 최근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강형철)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동리국악당에서는 제7회 고창군 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열렸으며 이번 감사패는 오세환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게 된 것이다.

평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특히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세환 의원은 관내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체험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창 청정유기농 낙농농조합법인(대표 오금열)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창군 어린이집 아동 300여명이 상하농원을 관람하고 소시지, 빵, 치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2024년에는 고창군 예산에 체험활동비를 증액해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20일부터 의료급여제도 순회 교육 추진

남원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순회 교육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련 제도의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제때 필요한 의료자원을 받지 못하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며, 도통동부터 일정별로 실시한다.

내용은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안내,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주요 지원제도, 이용시 유의사항, 부정수급 예방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황별 맞춤형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질병이나 노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남원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5월 현재 4,410명으로 시 인구의 5.78%를 차지하며, 이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타법 의료급여 대상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의사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교육대상은 450여명으로 최근 1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규로 취득한 대상자와 관외전입대상자, 병의원을 자주 이



용하는 수급자이며, 향후 10월에도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이 향상되도록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나서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는 지난 17일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포도농가와 복숭아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무주군지부와 전북지역보존센터, 구천동농협, 설천면사무소 임직원 등 35명이 참여해 복숭아 적과, 포도순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범석 지부장은 "농촌일손돕기에 함께해준 설천면사무소와 농협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행정과 함께 무주군의 농촌 인력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무주군지부는 관내 지역농협 및 농업관련 단체 등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주평통 순창군·대구북구 자매결연 합동세미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서애숙)는 지난 17일 순창한우명품관 연회장에서 양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통 순창군·대구북구 자매결연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자유·평화·번영의 시대를 준비하며 동서화합으로 갈등과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김진향(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전쟁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통일특강·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애숙 회장은 "순창군협의회와 대구북구협의회 자매결연 행사를 이어온 지 10회째를 맞아 21기 순창군·대구북구 자문위원들이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통일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을 해보자"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재경무주군민회, 적상면 삼유리서 농촌봉사활동

무주군은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18일 적상면 삼유리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무주군로컬JOB센터와 재경 무주군민회 회원 40여 명이 함께 복분자순 정리와 풀베기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재경 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은 "고향의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들이 시간과 마음을 모아 달려왔다"라며 "미려하나마 힘을 보태게 돼 마음 흐뭇하고 앞으로도 고향을 위한 일이라면 회원들 모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로컬JOB센터가 주관하는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유휴인력을 농가에 연계시켜 농사를 거드는 것으로, 지난 2022년부터 무주군 지역 내 850여 농가에 1만9,788명을 투입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어왔다.

농가들은 "농사가 시작되면 눈이고 밭이고 매일매일 손가는 일부성인데 일할 사람은 없고 점점 걱정"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먼 길 와서 자기 일처럼 해주니 너무 고맙고 든든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